

정례브리핑

2021.2.19(금) 10:30, 이종주 대변인(통일부)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8일부터 통일부 대변인직을 맡게 된 이종주입니다.

e-브리핑을 통해서도 오늘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통일부 대변인으로서 통일부와 내외신 언론을 잇는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성실하게 해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2월 19일 통일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사이에 예정되어 있는 통일부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오늘 오후 2시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제12차 양성평등위원회에 참석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유엔결의에 따른 분쟁지역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과 분쟁 및 예방과정에서 여성의 역할 확대를 논의하게 됩니다. 통일부 소관 과제인 남북여성 간 민간교류 협력지원과 북한이탈주민 여성에 대한 보호문제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오늘 오후 5시에는 통일부 장관과 한반도 평화 친선대사간의 화상간담회가 개최됩니다.

통일부는 지난해 9월 리사 클라크(Lisa Pelletti Clark) 국제평화국

회장, 이대훈 성공회대 교수 등 여섯 분을 한반도 평화 민간친선대사로 위촉을 했습니다. 위촉된 분들은 국내외에서 평화연구와 교육, 평화시민운동 등에 기여해 오신 분들로 친선대사가 되신 이후에 통일부와 협력하여 한반도 평화 공공외교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통일부 장관과 민간친선대사들이 세계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한반도 평화 담론을 확산시키는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통일부 장관은 내일 2월 20일 오전 9시에는 미국 하와이대가 주최하는 웨비나에 참석합니다. 미국 하와이대 한국학과는 새로 시작하는 '코리아 비전 대화 시리즈'의 첫 손님으로 통일부 장관을 초청하고, 통일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하와이대 교수진들과 함께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협력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전체가 온라인으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통일부 차관은 오늘 오전 8시 차관회의에 참석했고, 오늘 오후 2시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오늘 법안 소위에서는 평화경제특구법,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 등 통일부 소관법안 23건이 논의됩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어제 장관께서 국회에서 북한 식량상황 관련해서 130만 t 정도 올해 부족할 것 같다고 추산된다는 언급을 하셨는데요. 올해 북한 식량사정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올해 대북지원 계획이 혹시 있으면 그것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북한의 식량부족량을 정확하게 추계하기는 어렵지만, 정부는 올해 북한이 100만 t 이상의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진흥청은 2020년 북한의 식량작물 생산량이 2019년에 비해 24만 t 정도 감소한 440만 t 내외가 될 것으로 분석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규모는 북한이 최근 5년간의 평균 생산 규모와 비교해 볼 때 약 20만 t~30만 t 정도 감소한 규모이고요. 지난해 태풍과 장마 등 북한의 기상조건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던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비슷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9년에 WFP와 FAO 등 유엔기구들이 북한 현지에서 진행한 식량실태조사 결과 이후에 약 136만 t 정도의 식량이 부족하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이런 유엔기구들은 2019년 조사 결과 등과 비교해 볼 때 2020년에 북한의 작황이 보다 좋지 않고, 또 올해 식량부족량이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을 하기도 했고요. 올해 1월에 발표된 미국 농무부의 식량안보보고서에도 약 100만 t 내외의 식량이 부족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북한의 식량상황과 관련해서 이와 같은 국내외 연구기관들의 다양한 분석 등을 참조하면서 면밀하게 살펴 나가려고 하고, 면밀하게 살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대북지원 계획을 물어주셨습니다. 정부는 식량부족과 같은 인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정치·군사적 상황과 별개로 지속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서 북한의 쌀, 비료 등 전반적인 인도적 수요를 면밀하게 살피고, 코로나 상황이나 물자의 유입 등과 같은 제반여건, 그리고 국민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인도적 협력이 적절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협력방안 등을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지원시기나 방안 등, 규모 등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최근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관련해서 판문점이나 DMZ 방문 계획 또는 이런 것들 관련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있는지 하고요. 하지만 지금 최근에 또 며칠 동안에는 또 코로나 수가 증가하고 있어서 이런저런 상황을 감안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 주신 대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데에 따라서 통일부도 판문점 견학을 포함한 내부업무의 조정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

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방식들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여러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중대본의 방역지침 등을 준수하면서 다른 유관 기관들과 의견 협의를 해 나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관련한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이러한 협의 그리고 앞으로의 방역지침 상황 등을 보면서 판문점 견학 재개 등 제반 업무에 대한 조정이 결정되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북한에서 관광사업을 다시 재개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이런 보도들이 있습니다. 양덕온천 개장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추측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혹시 국경에서 어떤 봉쇄를 조금 완화한다든지 이런 움직임이 포착된 게 있나요?

<답변> 정부로서도 북한의 방역상황들 그리고 방역과 관련된 국경동향 등 각종 조치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국경상황의 변화 또는 방역지침이나 조치의 변화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드릴만한 사항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끝>